

# 도도동 정원산업 클러스터 밀그림

### 전주시, 항공대 인근에 구축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

전주시가 도도동 일원에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할지 밀그림을 그린다.

시는 도도동 항공대 인근 34만㎡ 부지에 전주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소계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된 곳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도동 항공대 일원의 개발 여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생산단지 구역 ▲유통센터 구역 ▲

창업보육 구역 ▲테마정원 구역 등에 대한 세부 기본계획이 도출될 예정이다.

생산단지 구역의 경우 시립 양묘장을 이전하는 동시에 정원 관련 신품종을 생산하는 시설이 만들고, 유통센터 구역에는 정원소재 및 관련 도구를 판매·전시·유통하는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보육 구역에는 정원관련 기업들의 창업보육 및 실습공간을 조성하고, 테마정원 구역에는 정원박람회 전시 공간 및 생활발차형 정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용역 결과물 도출 과정에서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지리적·생태학적 분석을 통해 생산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꼼꼼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계자는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회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기본구상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백신 접종,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정부가 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군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 2일 김승수 전주 시장이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자 간절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속려된 의료진이 원활하게 접종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 ‘숲에서 심신 충전·새로운 도약’ 프로그램 제공

### 전주시, 편백나무숲서 인생 후반기 고민하는 45~64세 시민 대상 ‘50+ 반려의 숲’ 진행

전주시는 지난 3일 상관 편백나무숲에서 인생 후반기를 고민하는 45~64세 시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50+ 반려의 숲’ 수업을 진행했다.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50+ 반려의 숲’은 이날을 시작으로 12주간 매주 토요일 펼쳐진다.

수업은 ▲숲 스토리텔링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식물이야기 ▲숲과

건강 및 생활안전 활동 ▲오감 통통!! 숲 체험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약용식물 ▲숲생이 한바퀴 에코터어링 등을 주제로 숲에서 심신을 충전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50+세대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숲에서 충전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바란다”며 “50+ 반려의 숲 수

업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숲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목공, 영상 제작, 낭독 과목 등이 운영된다.

/김윤상기자

## 탄소산업 분야 양질 일자리 창출 ‘온 힘’

### 전주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연구용역 착수

전주시가 ‘탄소산업 협동조합’을 모델삼아 탄소산업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전주만의 특성을 살린 탄소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일자리위원회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이번 컨설팅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전주만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요소로

는 탄소산업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이 꼽힌다.

전북은 10인 미만 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낮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탄소산업 협동조합은 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원료조달부터 생산, 물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공동기술개발과 공동생산설비 사용으로 제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제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탄소산업 협동조합의 세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탄소산업 협동조합 법인격 설립 ▲공동 R&D 구축 ▲협동화 공장·생산시설 기반 구축

▲공동 교육훈련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다양한 실행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간 개선, 임금 인상, 근로자 복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도출, 내년 하반기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전주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시장경제국장은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전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구체화되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전자지문’ 등록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손가락에 찍은 인크를 묻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신규 주민등록



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전자지문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35개 동 주민센터에 전자지문등록 스캐너를 보급했다.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까지 손가락에 흑색 인크를 묻힌 뒤 10개의 지문을 채취해 월별로 경찰청에 전달돼 만들어져 왔다.

반면에 이번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방식의 경우 손가락을 스캐너에 올려놓기만 하면 지문 이미지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에 입력되고 경찰청으로 실시간 전송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가 가능해졌다. 더구나 손에 인크가 묻지 않는 데다 지문 이미지도 기존보다 훨씬 선명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도 줄일 수 있어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설공단, 실내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코로나19로 휴전한 실내 공공 체육시설과 재개장을 대비해 실내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전북직접조사 전문 강

사를 초빙해 수영강사와 안전관리요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

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제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법과 대처법을 익히도록 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 실효성을 높였다.

공단은 이번 교육이 안전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